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어둠도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 발사훈련장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게 된 화성포병들의 피땀은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체취가 어려있는 무적의 화성포로 전쟁광신자들을 불이 번쩍 나게 답새기고 단숨에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결사의 각오가 활화산처럼 라번지고있었다.

발사훈련에는 남조선주둔 미 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략군사령관 김락겸대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발사장들을 돌아보시며 탄도로켓발사훈련준비정형을 직접 료해하시고 발사계획을 청취하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천둥같은 폭음이 대지를 뒤흔드는 속



에 거대한 불출기들을 뿜으며 탄도로켓들이 힘차게 날아올라 푸른 하늘가에 원추격렬의 비행운을 자랑차게 새기였다. 이번 발사훈련은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항공, 비행장들을 선제타격하는것으로 모의하

여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하였으며 목표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폭발조종장치의 동작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하였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탄도로켓발사훈련을 통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

서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운명을 억척으로 담보하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전투적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탄도로켓발사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략군 화성포병들은 그 어떤 불의의 명령에도 철저히 준비되어있을뿐아니라 기동력이나 타격력에 있어서 언제 봐도 정확하고 치밀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성원들에게 핵공격체계가동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체적인 화력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다양한 탄도로켓들을 개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자라양어에 깃든 사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는 얼마전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자라공장 건설을 현지지도하시
었다.

양식장들마다에 옥실거리는
자라를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
시는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오며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
의 인민사랑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인민관에 누구나 가슴
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자라는 주로 물에서 살며 알
놓는 때와 특별한 경우를 내놓
고는 땅위에 올라오지 않는것
으로 하여 좀해서는 보기 힘
든 동물이다. 자라가 얼마나
보기 힘든 동물인가는 우리 인
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구전소
설 《토끼전》에서 통왕의 병
을 고치는데 토끼의 생간이 특
효라는 말을 듣고 자진하여 토
끼를 꼬여왔던 자라가 도리어
속아 궁극에는 숨어살게 되었
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자라고기는 맛이 좋고 영양
분과 약성분이 많아 예로부터
고급료리로 유명한데 자라피
는 어린이보약재로 널리 써온
것으로 하여 더 귀물로 여겨
왔다.

자라에는 다른 어느 식료품
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8대 필
수아미노산과 미량원소들이 다
포함되어있어 영양식품들중
에서도 손꼽히고있다.

자라로 음식을 가공하여 먹
으면 정력과 원기를 돋우어주
고 내장을 튼튼하게 해줄뿐아
니라 피를 보충하고 맑게 하는
데도 특별한 작용을 한다.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에 선
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이처럼 귀한 자라를 인민들
에게 먹이시려고 주체99(2010)년
1월 자라공장건설을 몸소 받기
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셨었다.

부장조각건설을 위한 중요대
상건설이 분초를 다투며 본격
적으로 진행되고있던 그때 그
누구도 자라공장건설에 대해
는 생각도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인민이 바란다면 돌
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승
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장군님
이시기에 그 누구도 생각 못한
자라공장건설을 받기하신것이
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인 주체100(2011)년 10월 새로
일떠선 자라공장을 찾아주신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못마다
에서 옥실거리는 자라를 보시면
서 자라양식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며
앞으로 자라료를 옥류관 료
리전문식당에서만이나 아니라
공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
러 식당들에서도 봉사하게 하
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날 자연생태환경속에서는
4~5년 걸려야 어지가 되는 자
라를 1년만에 0.5kg이상 나가
는 솔뚜껑만 한 크기로 키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사
회주의재부가 늘어나고있다고
만족해하시던 아버이장군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고
공장의 일꾼들은 절절히 말하
였다.

위대한 장군님
의 인민사랑이
어린 공장이기
에 지난해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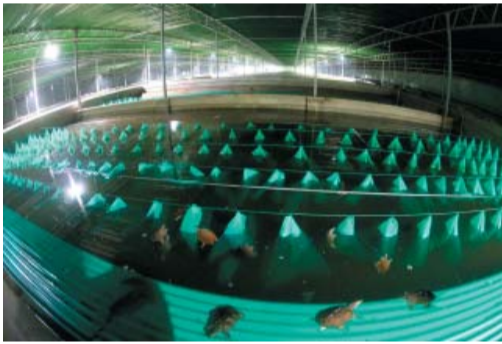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
는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하시
고 공장을 인민들이 실지 덕
을 보는 공장, 선진적인 양
식방법과 기술이 도입된 현대
적인 공장으로서 전변시키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던것
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
랑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
의 양보도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인
민관에 떠받들려 평양자라공장
은 우리 나라 양식공장의 본보
기, 표준으로 회한하게 전변되
게 되었다.

새롭게 전변된 공장을 찾은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
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자라공장
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쁘지 모
르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
들에게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
음스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었
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고 하시며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
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
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진정 위대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인
민관에 떠받들려 인민의 꿈과
리상, 행복은 나날이 꽃피고
있는것이다.

권한숙



지난 10여년간 처녀의
몸으로 환자들을 위해 자
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쳐왔고 부모없는 아이
를 맡아 키운 황해북도 송
윤희의사. 그는 제2차 전
국청년미용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토론을 하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만나뵈는 크나큰 영광을

소녀의 간절한 소망

기자는 먼저 황해북도
사리원시 산업동에서 살
고있는 송윤희의 어머니
윤연숙녀성을 만났다. 윤
연숙녀성은 평범한 자기
말을 온 나라가 다 알도
록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
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뱉었다.

《우리 윤희는 어릴적부
터 한번 마음먹으면 꼭 해
내군다는 이악쟁이였다.
TV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
기도 커서 일을 잘하여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
를 찍겠다고 말하여 어른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인민의 사랑받는 처녀대의원

지니었다. 오늘도 그는
황해북도대의원으로 만
사람의 사랑속에 청춘
시절을 값있게 빛내고
있다.

들을 놀래웠다. 그 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
을 때 온 마을사람들이 윤
희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
졌다며 얼마나 부러워했
는지 모른다.》

—딸이 부모없
는 아이를 데려
다 키운다고 하
던데.

《우리 윤희
는 하루종일 환
자치료에 전심하
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어린
광영이를 돌보느
라 밤잠을 설치
군 한다. 부모없
는 아이라고 눈

먼 사랑을 한다면 오히려
그의 길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윤희는
광영이가 숙제를 하지 않
고 장난에 팔려있으면 꾸
중도 하고 세수를 안하고
잠을 잘 때는 깨워서 몸을

환자를 위한 지극한 정성

환자들을 자진하여 맡아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쳐
정성을 다해온데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사실 아
름다운 한껏 뽐내고싶은
처녀시절에 피부를 메넨
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
다. 이어 기자는 송윤희의
사를 만났다.

기자: 환자들을 위해 수
십여차 피와 살을 바쳤다
고 하던데.

송윤희: 그런 일은 나
만이 아닌 우리 사회 어
디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도 전
신 75% 3도화상을 입은 구
급환자를 위해 나만이 아

며칠전 평양곡산공장에 대
한 취재길에 올랐던 우리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난 6월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옥당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지
금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이 생
산되는데 이 공장에서 나오
는 당은 주체당이라고 하시
며 만족해하시었다는것이
였다.

강냉이에서
나오는 당분을
처음에는 과당
이라고 하였다.
그러던것을 인
제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강냉이에서 뽑은 당이라는 의
미에서 옥당이라는 이름으로 부
르도록 하시었다.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원료로, 우리 식의 가공방법
으로 생산하는 당이라는 뜻
에서 주체당이라고 하신것
이다.

주체당!
새길수록 얼마나 깊은 뜻
을 심어주는 새로운 시대어
인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하
나의 실비를 현대화해도 주
체적립장에 서서 자기의 실
결과 자기의 기호와 체질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창조해
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
오늘 이 땅에 하나의 창조기
질로, 본래로 되고있는 현
실이 그대로 담긴 이름이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
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
에 의거하는 주체에 뿌리를
둔 자력자강의 력사이다.
아버이수령님의 의하여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주체는
공화국의 전 력사에서 애
국리념으로, 정치신조로
되여 조선을 이 지구상
에서 자주와 존엄의 나라로
빛을 뿌리게 하였다.

해방후 일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큰 나라의 가맹공화
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했을 때 세워진

조선식의 민주주의인민공
화국, 핵과 보총과의 전쟁이
라 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에서 미국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놓은 독창적인 주체전
법, 일부 나라들에서 《국
제적분업》과 《통합경제
》를 운운하며 《제브》에
들것을 요구할 때 확고한
자주적립장을 구현하여
건설된 자립적민족경제,
20세기 문예부흥의 새 력
사를 펼쳐놓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자강력체일주
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
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립
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
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
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은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자
위적립량을 비뻤화하며
그 무슨 《구멍없는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서 아무리 발악해도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새
세기 표본공장, 본보기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증산의 동음 높이
올리고 사람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는 인기있는 제
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상품, 명제품들이
개발생산되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향상을 도
모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
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이
어가는 경애하는 원수
님을 모시여 조선을 주
체의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주체, 이 위대한 자력자
강의 정신과 힘으로 공
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
시며 사회주의강국건
설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평양곡산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사탕들

라고 본다.

환자들은 상처가 꼭 나
을수 있다는, 이쯤한것
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탁판의 의사의 눈빛과
인상을 통해 받아안는다.
환자의 상처에 칼을 대
야 할 의과사가 정성이
부족하면 환자는 신심을
잃게 된다.

참된 인간이 되라

누구나 청춘시절을 값
있게 보내기를 바란다.
한다면 어떻게 사는것이
참다운 청춘시절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송
윤희의사에게서 들을수
있다. 송윤희의사는 《사
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야 한다고 본다. 나
역시 사회와 집단, 환
자들을 위하여,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청춘의
심장을 다 바쳐 보람
있게 살고싶다.》고
말하였다.

사회와 집단, 인간을
위하는 그렇듯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지니고 정
성을 다해가는 그였기
에 오늘날의 젊은이들
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
는 도대의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것 아니라.
하기에 사람들은 누
나 송윤희녀성이 사
리원 의과대학 원
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하고 도병원의사
로 배치되었을
때에는 제일처럼
기뻐했고 황해북
도대의원후보
자로 되었을 때
에도 기꺼이 찬
성의 한표를
바친것이다.
처녀대의원
에 대한 이야
기는 여기서
끝났다.

떠나가는 기자에게
처녀는 오래도록
손을 흔들
어주었다. 환
자를 위해 지
극한 정성을
바쳐가는 사
회주의보길
군들의 티
없는 마음
인양 그가
입은 새
하얀 위생
복이 시야
에서 사라
지지 않았다.

본사기자 강류성



민족대단합,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 (4)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승리

1970년대 초 북남사이에서 고위급정치회담이 진행되고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기 위한 내외반통일세력의 의도적인 방해책동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특히 남조선의 집권층은 거레앞에 확약한 7.4공동성명만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두개 조선》 정책에 매달리면서 이른바 《체제우위론》에 바탕을 둔 《단계론》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북과 남사이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시하면서 그 호상관계를 화해할수 없는 적대관계로 보는데로부터 체제의 통일이 없는 민족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반통일론에 지나지 않았다.

더우기 남조선집권세력은 7.4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앉자마자 《이 몇장의 종이에 우리의 운명을 걸칠수 없고 또 믿을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부르짖었다. 지어 조국통일 3대원칙에 천명된 자주적 원칙을 꺾어버리고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간청하는 역겨운 추태까지 부리었다.

1973년 6월 23일에는 이른바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성명》(《6.23특별성명》)이라는것을 통해 《두개 조선》 오작을 위한 불순한 흥계를 드

러내는데까지 이르렀다.

비밀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사태를 예리하게 꿰뚫어 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6.23특별성명》이라는것이 발표된지 4시간만인 주제 62(1973)년 6월 23일 외국의 한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력사적인 연설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국통일 5대방침을 천명하시었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있다.

조국통일5대방침은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엄숙한 갈림길에서 나라와 민족을 영구분렬의 위험에서 구원하고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강령, 내외반통일세력의 민족분렬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온 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사를 내외에 과시한 통일선언이었다.

또한 그것은 전체 조선인민을 분렬과 매국을 반대하고 통일과 애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불러일으킨 위대한 전 투적강령, 민족의 의사와 시대의 추세에 전적으로 맞는 자주적인 평화통일강령이었다.

하기에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한 민족의 대강령》이며 《구국의 화불》이라는 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으며 일본의 교도통신을 비롯한 내외언론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내놓으시자 서울시민들은 그것을 지지하여 환영을 올렸다.》고 전하였다.

세계도처에서는 《평양에서 열린 통일선언으로 《6.23특별성명》은 4시간만에 휴지폭이 되었다.》, 《서리맞은 청와대는 울상이 되었다.》, 《이것은 완전통팔이다.》, 《김일성주석님은 하늘이 낸 천하의 제일가는 정치가이시다.》 등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었다.

조국통일5대방침이 발표됨으로써 내외반통일세력이 《평화통일》의 간판뒤에서 꾸며오던 온갖 교활한 음모와 술책이 날 날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조선에서 누가 진정으로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원하며 누가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하여졌다.

이처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과 남의 화합과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방도가 제시된 주체적인 통일강령, 민족단합의 정치대강을 받아안았기에 우리 겨레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신심뜨님이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어나갈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에 대한 내외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북측준비위원회에서 련석회의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련석회의가 온 겨레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놓는 전환적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고 일련의 대책들을 강구하였다.

또한 련석회의를 계기로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 단체 및 각계층 대표들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협의대책

할수 있게 분과위원회들을 내오는 사업들도 추진하고있다.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련석회의를 보다 의의깊고 다채롭게 장식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성의있게 준비하고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남측본부, 민주로총, 《한국로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청년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련석회의개최제가 조선반도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폭넓은 정치협상회의, 가장 정당한 통일제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환영하는 기자회견들을 진행하고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남조선당국이 우리

의 련석회의개최제안을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니, 《분렬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전술》이니 뭐니 하며 무작정 반대해나서는것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처사로 된다고 단죄규탄하면서 련석회의의 성과적개최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한결같은 지향을 똑바로 보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에 합류해나서야 할것이다.

주제105(2016)년 7월 19일 평양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 성명 발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제안을 지지하여 얼마전 재미동포 동부지역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국해방 일흔한돛을 맞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개최하자는 공화국의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보내며 련석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과 미국의 동북아시아패권정책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으며 겨레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와 압박속에서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조선을 어떻게든 압살해보려고 날뛰고있으며 저들의 군사적패권장악을 위해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를 다그치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처럼 엄중한 정세하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개최제안은 북과 남, 해외의 수많은 동포들과 조선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계인민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서야 우리의 생명도 있기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자주적평화통일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활동하고있는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는 련석회의가 가지는 의의를 동포사회에 적극 알리며 동포대중과 함께 지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민족의 통일성업에 바친 값높은 삶은 민족과 더불어 영생한다. 이것은 민족통일운동사에 자욱을 남긴 김구, 김규식선생의 삶이 새겨주는 철리이다.

김구선생으로 말하면 한때 《상해림시정부》의 요직에 있으면서 《반일》과 《독립운동》을 표방하였지만 안숙으로는 반공사상과 우익민족주의에 매달려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을 가장 철저한 《반공투사》로 자처하고있었다.

김규식선생 역시 일찌기 상해림정 외무총장, 중경림정부 주석을 하였으며 해방후에는 《민주의원》의 부의장, 미국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위원회》의 우익측 주석, 《파도립법의원》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공으로 한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기간을 통하여 때늦게나마 조국통일이 곧 애국이라는것을 깨달은 이들은 한생도록 지니온 반공리념을 허물고 련북통일에로 주저없이 인생의 뜻깊은 방향전환을 하였다.

김구, 김규식선생은 주제 36(1947)년 10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련석회의를 진행할데 대한 통일애국의 방안에 접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을 감복시킨것은 과거에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오늘 애국애족의 림장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련북통일하려는 사람들과는 그들의 과거경력이 어떠하든지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라는

련북통일의 길에 생의 자욱을 남겨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과 무한한 포용력이였다.

여기에 고무된 김구, 김규식선생은 공동의 명의로 김일성주석께 남북협상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회답서한을 올리였으며 주제 37(1948)년 3월에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보내주신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과 함께 남북련석회의가 4월 14일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다.

김구선생은 3월 31일 기사단과 회견하고 평양에서 소집되는 남북련석회의는 《민족의 서광》이며 《성공을 확신》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4월 3일 김구, 김규식선생을 주석단에 내세운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결성식에서는 《...민족의 운명을 그려치려는 모든 책략을 분쇄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전진하자!》라는 내용의 호소가 담긴 강령과 선언이 채택되었다.

불맛은 황소격이 된 미제와 민족분렬세력들은 김구,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인사들이 평양으로 가지 못하도록 협박전화를 거는가 하면 반동적인



청년학생들을 내몰아 《김구선생의 부흥반대》시위와 룡성도 벌리게 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남북련석회의참가자는 《공산분자》나 《용공분자》로 몰겠다고 하면서 김규식선생에게 생각을 달리할것을 강박하는 한편 수하졸개들을 통해 남조선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김규식선생을 초대대통령으로 밀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더라도 김규식선생만은 북행을 중지하라.》고 회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주석께서 보내주신 4월남북련석회의의 특별초청장을 가슴에 품은 김구, 김규식선생은 《조국이 없고

민족이 망하면 사상이요, 주의주장이요 하는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고 민족통일에 이바지할수만 있다면 38° 선에서 쓰러져도 좋다.》, 《절세의 애국자로 명망있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려는 숭고한 일념에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불러주셨는데 진심으로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접수하고 쾌히 호응해나서는것이 지당한 일인줄로 안다.》고 하면서 북행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김구, 김규식선생이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면서 절감한것은 참다운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민족의

《남북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우리 민족도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 단결할수 있다는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써 증명하였다.》라고 심증을 피력하였던 것이다.

최대의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 바치는것이며 애국자의 삶은 죽어서도 영원하다.

김구, 김규식선생은 1948년 5.10 《단선》반대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1948년 9월 하순 《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련공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수행하였다.

여긴 미제와 반통일세력은 1949년 6월 26일 《통일촉진협의회》의 주석인 김구선생을 암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련공통일애국의 신조를 안고 굴함없이 싸워나갔던 김구선생이 암살당했다는 비보를 받으시고 통분함을 금치 못해하시며 6월 27일 당시 진행되고있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 제 2일회의 개최에 앞서 김구선생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시었다.

주석께서는 김규식선생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거둬지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1950년 12월 김규식선생이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일성주석께서는 김규식선생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분이라고,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의 파쇼폭압 밑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은 량심적인 민주인사라고 하시면서 추도식을 잘 해줄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육체적생명의 마멸이 곧 영원한 죽음은 아니다. 지금도 김구, 김규식선생의 이름은 대동강의 속섭에 건립된 통일전선탑의 천연화강석에 아로새겨져있으며 주제 79(1990)년 8월에 수여된 첫 조국통일상 수상자들로 통일운동사에 당당히 빛을 뿌리고 있다.

이들의 인생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은 곧 애국이며 그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자신을 바칠 때 후세에도 땀땀하고 빛나는 값높은 삶을 살수 있다는것이다.

진영민

최근 미국과 박근혜당이 국제무대에서 《탈북자》들을 내세워 반공화국 《인권》모락송동에 광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전망가 량세철과 대담을 가졌다.

기자: 지금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은 《탈북자》들을 《인권옹호투사》로 둔갑시켜 반공화국 《인권》모락송동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그 밑바탕에는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을 흐리게 하고 저들 남쪽세상이 인권을 위한 《참세상》인듯이 꾸며보려는 비렬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본다. 참다운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탈북자》들의 생활처지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량세철: 서두에 먼저 말한다면 국제무대에서 감행되는 《탈북자》들의 《인권증언》 내용은 몇푼의 돈에 명줄을 건 가공한 놀음에 지나지 않으며 남조선은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락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유괴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공화국어린이 사진을 가지고 서울에 갔을 때였다. 권나현은 사진을 보더니 나에게 이렇게 오동통하고 잘 입은 아이들이야 부모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했지 부모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지는 가.)고 하면서 펄쩍 뛰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진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맞다. 지금 공화국에는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공화국의 어린이들을 유인람치하려다가 체포된 남조선정보원앞잡이 고현철이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권나현이라는 년이 공화국의 육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부모있는 아이들》이라고 착각한것만 놓고보아도 공화국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잘 돌봐주고있는가를

대담 《탈북자》들의 비참한 처지가 보여주는것은

지금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은 황금만능,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온전한 직업도, 거처지도 없이 인간이하의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근근히 목숨을 연명해가고있는 형편이다.

《탈북자》의 92%가 고 정적인 직업이 없이 풀밭이나 막로동 등을 하고있으며 96%이상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결박살이를 하고있다. 절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최하층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자체조사자료에서 《탈북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에 비해 더 많은데도 월평균소득은 그들과 대비도 되지 않는다.》고 실로하였다.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실업률의 7배에 달하고 자살률은 3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언젠인가 《탈북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잘 알수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정보원의 배후조종에 따라 《탈북동포구출협회》라는 반공화국모략단체를 운영하고있는 권나현은 2003년에 공화국에 죄를 짓고 월남도주한 년이다. 이년도 공화국에서 살아보았으니 부모없는 아이

《부모있는 아이들》?

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공화국의 시책을 잘 알고있을것이다. 하지만 조국을 배반하고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앞장서온 이년은 지금껏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의 력사에 대하여 알고있고도 하지 않았고 알수도 없었다. 최근년간에만도 공화국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고있다. 이 눈부신 전변을 보며 공화국의 남녀로소 누구나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또 다르다고 경탄하여 말하고있다.

를 한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남조선에 와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탈북》녀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그들은 남조선에서 하나의 성노리개로, 인신거간군들의 《단골상품》으로 되고있다.

어느한 인권재단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탈북》녀성 87%가 매춘업에 종사하고있으며 대다수 녀인들이 강간, 강도, 사기협잡 등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다고 한다. 직업구하기가 말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다가 사회적으로 《탈북》녀성과 결혼하면 정보원의 감시를 받거나 북에 동조하는것으로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때문에 시집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언론들은 남조선에서 《탈북》소년들은 《왕따》(따돌림), 청년은 《취포자》(취업포기자), 녀성은 《혼포자》(혼인

공화국에서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인민이 놓여있다. 해마다 하나씩 일떠서는 현대적인 새 거리도 인민을 위한것이요, 풍라 운영하고있는 권나현은 2003년에 공화국에 죄를 짓고 월남도주한 년이다. 이년도 공화국에서 살아보았으니 부모없는 아이

《부모있는 아이들》?

서 설새없이 울려나오는 것도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이다. 인민사랑이 정책이 되고 정치로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누구나 대답할것이다. 령도자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도 원아들이고 온 나라 도처에 새로 현대적으로 꾸려진 육아원, 애육원들에서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러워할 최상의 행복을 누려가는 아이들도 원아들이다. 이런 행복한 원아들을 꼬여서 남쪽으로 데려가

포기자), 《탈북자》일 받은 《이방인》, 《3등인》, 《배신자》로 손가락질을 받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기자: 정말 남조선은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락원》이 아니라 인간생지옥이다.

량세철: 《탈북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이뿐이 아니다.

그들은 반민족적인 《정권》에 의해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도구로도 리용되고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값있게 살아야지 동족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놀음의 도구로 살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야 열흘, 백날 산들 무슨 값이 있겠는가.

이에 가책을 느낀 일부 《탈북자》들은 얼마전 어느 신문사를 찾아가 이렇게 러놓았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반복집회에 나가고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가하면 장갑이라도 하나 생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리용하려 하였다니 이 얼마나 격분할 일인가.

기자회견장에는 남조선의 유인람치범피자들이 고아들을 유혹하라고 보냈다는 체화품웃들도 증거물로 제시되어있었다. 국가의 배려로 철따라 새 옷을 받아안고 영양식품들을 보장받으며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자라나고있는 공화국의 어린이들 일진대 그따위 너저분한 옷가지들을 가지고 유혹해보려 한 비렬한 행위에 보는 사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세계가 못가진 자강의 힘으로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될 희망찬 래일을 마중가는 긍지높은 공화국의 인민들을 적대세력들은 10년, 100년이 가도 절대로 유혹할수 없고 되돌려세울수도 없다.

덤벼도 알고 덤벼라는 말이 있다. 공화국의 현실을 알아도 똑바로 알고 구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임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본사기자 고영숙

기고 풍전을 취여주기때문이다. 《생계에 목이 메어 잘못된짓인줄 알면서도 할수 없이 복을 모해하는 증언을 하였다.》, 《정보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간첩으로 몰린다.》, 《선거때마다 《새누리당》을 찍는데 그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협박전화때문이다.》, 《반북행사와 《종북》몰이에 가담해야 살아남는것이 우리 《탈북자》들의 운명이다.》

기자: 정말 불우한 인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동족대결송동으로 내몰리우고있는 《탈북자》들의 처지가 가공하기 이를테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조국을 버리고 도주한데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공화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싶다.

량세철: 지금 남조선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 《탈북자》들은 공화국의 품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던 지난날과 일시적인 난관을 이기지 못해 정든 고향과 조국을 버리고 도주한데 대해 돌이켜보면서 뼈저린 후회와 끝없는 자책속에 모 대고있다.

특히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온 세계가 경탄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TV와 인터넷를 통해 목격하면서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불같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정보원것들의 간계에 속아 남쪽으로 끌려갔다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탈북자》들은 그렇게 용서해주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는 공화국의 은혜로운 광복정치를 목격하면서 저저마다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정보원놈들의 유인람치마수에 걸려들어 남조선에 끌려간 김련희녀성은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통해 공화국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는 《나는 단 한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잊지 않고 살고있다. 남쪽에서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고향을 버리고 도주한데 대해 돌이켜보면서 뼈저린 후회와 끝없는 자책속에 모 대고있다.》

《가족들의 신변안전》이니 뭐니 하고있더니 정말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딸들이 그 무슨 《자유의사》에 의해 남조선에 갔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한것이 바로 역적패당이다.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탈북》이요 뭐요 하면서 그렇게도 법석 떠들며 대던 놈들이 지금에 와서는 《녀중업원들이 자유의사를 밝히면 북의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녀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임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회와 끝없는 자책속에 모 대고있다.

특히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온 세계가 경탄하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TV와 인터넷를 통해 목격하면서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불같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정보원것들의 간계에 속아 남쪽으로 끌려갔다가 조국으로 돌아오는 《탈북자》들은 그렇게 용서해주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는 공화국의 은혜로운 광복정치를 목격하면서 저저마다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정보원놈들의 유인람치마수에 걸려들어 남조선에 끌려간 김련희녀성은 지난해 9월 인터넷과 TV를 통해 공화국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는 《나는 단 한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잊지 않고 살고있다. 남쪽에서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고향을 버리고 도주한데 대해 돌이켜보면서 뼈저린 후회와 끝없는 자책속에 모 대고있다.》

《가족들의 신변안전》이니 뭐니 하고있더니 정말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딸들이 그 무슨 《자유의사》에 의해 남조선에 갔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한것이 바로 역적패당이다.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탈북》이요 뭐요 하면서 그렇게도 법석 떠들며 대던 놈들이 지금에 와서는 《녀중업원들이 자유의사를 밝히면 북의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녀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임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러보내달라고 당국에 항의하다가 지난 3월에는 서울주재 월남대사관으로 뛰어들기까지 하였다.

2007년 주변국으로 비법월경하던 어느 남조선에 끌려간 어느 《탈북자》도 《한겨레》신문기자와 만나 《한때 불법으로 주변국에 체류하였지만 남조선사람이 될 마음은 없었다. 정보원에서 심문을 받고 나온 뒤에야 속히 잘못 왔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북에 있는 가족과 고향이 그리웠다.》라고 통탄하였다.

지난 3월 남조선 《북인권정보센터》가 《탈북자》들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남쪽이 북보다 살기 더 어렵다. 배고프더라도 생존경쟁이 없는 북의 생활이 그리웠다. 순간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북한 것이 한생 후회된다.》고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였다고 한다.

정말에 빠진 《탈북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생생한 증언은 북과 남에서 참다운 인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공화국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참담게 보장해주는 락원이라면 남조선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짓밟히고 죽어가는 인권폐허지대이다.

정말에 빠진 《탈북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생생한 증언은 북과 남에서 참다운 인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공화국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참담게 보장해주는 락원이라면 남조선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짓밟히고 죽어가는 인권폐허지대이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할수 없다

박근혜당이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당한 요구에 그 무슨 《가족들의 신변안전》이니 뭐니 하고있더니 정말 치솟는 격분을 누를길 없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딸들이 그 무슨 《자유의사》에 의해 남조선에 갔다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한것이 바로 역적패당이다. 《자유의사에 의한 집단탈북》이요 뭐요 하면서 그렇게도 법석 떠들며 대던 놈들이 지금에 와서는 《녀중업원들이 자유의사를 밝히면 북의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녀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임을 깨우쳐주는 말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할 놈들이었다면 애당초 우리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것도 서슴지 않는 박근혜역적무리야말로 개만도 못한 추물들이며 절대로 살려둘수 없는 역적배들이다.

금이야 옥이야 정을 다해 키운 귀중한 딸자식을 버리고 생리발을 강요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무슨 인간애, 동포애가 한 점이라도 있다고 《가족들의 신변안전》이니 뭐니 하는가.

정말로 우리 딸들이 《자유의사》로 남조선에 갔다면 직접 만나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보겠다는 부모들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당은 《가족들의 신변위협》이니 뭐니 하는 말갈지도 않은 수작질을 그만두어야 하며 강제로 억류한 우리 딸들을 한시바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류송영의 어머니 리금란

박근혜당은 우리 부모들이 터치는 무자비한 복수의 웨침을 똑똑히 새겨두고 우리 자식들을 당장 돌려보내라. 류송영의 어머니 리금란

류송영의 어머니 리금란

《상승사단》의 괴멸이 《승리》라고?

지난 20일 남조선의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이라는것이 벌어졌다. 거기에 모여든 미군과 남조선군 등의 어중이떠중이들은 《대전지구전투는 성공적인 전투였다.》느니,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녀두리를 쉼치었다고 한다.

젊은 소가 웃다 꾸미러질 노릇이다. 부끄러울 때는 두들겨리는것이 낫다더니 대전에서의 참패가 《성공적인 전투》?

공화국의 전승력사에 금문자로 새겨진 대전해방작전을 두고 전세계는 《현대포위전의 모범》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미국도 《이미 때가 늦었을 때까지 파악 못한 전술이었다.》고 실로한 공

화국의 대전해방작전에 의해 《지카마우카의 바위》, 《상승사단》이라던 미24보병사단이 전멸되었고 미군과 남조선군 1만 7 500여명이 살상포로되었다.

무솔장군이 되어 병사복을 입고 달아나던 사단장 편은 17살 난 인민군전사에게 포로되었고.

그에 앞서 7월초에는 미 24보병사단의 《스미스투공대》가 오산에서 괴멸되었고 7월 중순에는 《불퇴의 신》, 《최종방어선》이라하며 《3년간은 문제없이 지탱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금강방어선이 3일만에 물먹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사단장이 포로되고 《상승사단》이 전멸한것이 《성공적인 전투》이고 《승리》였다니 썩은 시체우에 비단을 씌우고

아름답다고 하면 곧이 믿어 전멸한 《상승사단》미24보병사단의 종말이자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국의 운명이었고 그에 추종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말로였다는것을.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대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패전장군들이 《조언》했건만 그를 망각한 미국의 대조선전략가들, 남조선의 친미호전세력은 지금도 침략야망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그러나 이제 조선에서 미국에 의해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침략자들은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처참한 종국적과멸을 당하고 그대로 가는 후날 패전을 《승리》라고 역사를 외곡해

력사는 누가 고친다고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

어 전멸한 《상승사단》미24보병사단의 종말이자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국의 운명이었고 그에 추종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말로였다는것을.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대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패전장군들이 《조언》했건만 그를 망각한 미국의 대조선전략가들, 남조선의 친미호전세력은 지금도 침략야망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그러나 이제 조선에서 미국에 의해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침략자들은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처참한 종국적과멸을 당하고 그대로 가는 후날 패전을 《승리》라고 역사를 외곡해

력사는 누가 고친다고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

반로동정책 폐기하고 로동운동탄압 중지하라, 로동기본권 보장하라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전지역에서 총파업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20일 남조선의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전지역에서 민주로총의 대규모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로동자들은 반로동정책 폐기, 민주로총에 대한 탄압중단, 로동자회생 강요하는 구조조정중지, 임금인상, 비정규직과 교원, 공무원의 로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4개 지역 250여개 사업장들에서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민주로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1만 1 000여명의 참가하에 총파업집회를 가지었다.

반로동정책 폐기하고 로동운동탄압 중지하라, 로동기본권 보장하라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전지역에서 총파업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20일 남조선의 서울과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전지역에서 민주로총의 대규모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로동자들은 반로동정책 폐기, 민주로총에 대한 탄압중단, 로동자회생 강요하는 구조조정중지, 임금인상, 비정규직과 교원, 공무원의 로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4개 지역 250여개 사업장들에서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민주로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1만 1 000여명의 참가하에 총파업집회를 가지었다.

반로동정책 폐기하고 로동운동탄압 중지하라, 로동기본권 보장하라

투쟁이 어떻게 불법이고 리기적인것인가고 분노를 터뜨렸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최근 한 고위공직자가 민중을 개, 돼지로 모독하였다고 격분을 토로하였다.

사실 《정부》의 고위관료배들과 권력의 하수인인 경찰이야말로 제 주인을 보고 짖어대는 개이며 자기 리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까지 저버리는 재벌들이 바로 돼지라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잘못된 지배권력과 로동자, 민중은 안중에 없는 재벌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결광신자들은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친미굴종 《정부》가 미국에 준 선물

지금 《싸드》의 남조선배치결정은 온 남녘인민들과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초래하고있다. 《싸드》의 탐지거리에 들어있는 주변나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남조선당국은 사면팔방으로 규탄배격반는 가련한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자기 스스로 초래한 화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손을 들어준데는 현 집권세력의 극도의 친미굴종의식이 깔려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싸드》배치는 공화국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전지역을 제패해보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에서 《싸드》문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것은 2014년 6월 당시 남조선미국연합군 사령관이 《본국에 《싸드》배치를 건의했다.》고 공개한 때부터이다. 지금껏 《3NO(오침, 협의, 결정 없음)》립장을 취해오던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에서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성공하자마자 미국과 함께 《《싸드》배치를 공식론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싸드》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싸드》가 미국의 리익, 다름아닌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추구하고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으로 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미국의 리익을 위해 온 남조선땅을 통채로 미국에 내맡긴 당사자가 박근

혜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의 력대집권자들치고 친미사대를 하지 않은 집권자가 없지만 박근혜처럼 친미사대에 환장한 특등사대매국노는 없다.

《대통령》병거지를 쓰자마자 맨먼저 달려간 곳도 다름아닌 미국이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에 붙어 온갖 못된짓이란 못된짓은 도말아한것도 바로 박근혜이다. 이런 박근혜에게 넘겨주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미국이 그냥 가지고있었다라고 애걸하였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분노한 민심의 징벌을 받았을 때에 멀리 해외행각의 길에서 위문전문을 보낸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병문안을 한다 하며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대미굴종주

래까지 부러웠다.

미국을 덮어놓고 추종하고 따르면서 미국을 위해 남조선에 《B-52》전략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사상들을 모두 끌어들이 남조선인민들이 항시적으로 미국의 핵을 머리에 이고 핵전쟁공포중에 시달리게 만든 박근혜가 이번에는 승냥이의 손을 빌어 동족을 압살해보려고 《싸드》배치라는 회세의 매국배족행위까지 감행한것이다.

이런 친미굴종적인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에 들어앉았다는 절호의 기회가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여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것이 미국의 속사안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박근혜의 이번 망동을 미국에 굴종하여 주권을 송두리채 팔아넘긴 《현대판을 사오적의 행보》, 《침명적이고 망국적인 선택》, 《국민안보에 전쟁이상의 위협을 가져온 대재앙》 등으로 단죄하면서 《싸드》배치결정을 전면배치화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이제 미국의 《싸드》배치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더 악화되고 남조선과 강대국들사이의 대결과 전쟁판에 휘말려들수 있는 2중, 3중의 위협까지 떠안게 된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기에서 《싸드》배치로 인한 극심한 환경 파괴와 막대한 비용의 부담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될것은 무고한 남조선인민들뿐이다.

친미사대굴종이 체질화된 집권자 하나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될 화는 이처럼 엄청나고 돌이킬수 없는것이다. 현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돌아가는 박근혜야말로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가 마땅한 특등재앙거리임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미국의 《싸드》배치로 온 남조선이 시끌벅적하다.

그런 속에 박근혜 《정권》은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싸드괴담》으로 락인했다.

《《싸드》의 전자파는 기형아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 등을 유발시킨다.》, 《성주에서는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가 안 열리며 주변땅이 못쓰게 될것이다.》, 《전자파가 린근주민의 신체내부에 화학상을 발생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증가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에 대해 이렇게 아픈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괴담이란 보통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싸드》가 생명과 생활을 위협한다고 말한것이 《괴담》이 될수 없지 않는가.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국방부를 내세워 《싸드피담》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싸드피담》을 류포시키는데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매국배족적인 《싸드》배치결정으로 터져나오는 인민들의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저들의 친인공노할 범 죄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 알팍한 술책이다.

돌이켜보면 저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인민들

이 그에 항의하여 들고 일어나면 《괴담》이니 뭐니하고 떠들어대며 탄압하는것은 독재 《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파쇼당국은 인민들속에서 대대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바른소리, 여론들을 《괴담》이라고 몰아대지만 사실 진짜괴담을 만들어 내돌리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다름아닌 《괴담》을 내뿜는다고 목에 피대를 끈두세우고 있는 그들자신이다.

《《싸드》는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차원의 방어용무기체계》라는 괴뢰당국의 뇌두리부터가 세인이 경악할 괴담중의 괴담이다.

공화국의 핵은 이미 루차 천명한것처럼 수십년간 핵무기로 국가와 인민의 운명을 위협해온 미국에 대항하여 만든것이며 그 과녁은 남조선인민들이 아니라 미국이다. 다시말하여 미국본토와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를 비롯한 침략적점들이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전쟁발발위험을 막아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는 민족의 보검을 두고 《위협》이라고 떠드는것이야말로 황당한 꾀변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매달리는 미국의 말

을 고스란히 되바야외운데 지나지 않는것이다. 《핵과 미사일위협》은 미국에 가해지고있는데 남조선인민들한테로 온다고 말하는것도 미국의 논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습관된 친미사대굴종주의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꾀변이 아닐수 없다. 《싸드》는 남조선당이 말하듯 《자위권차원의 방어용무기체계》

인민들의 생명안전이라는 것이 관심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길가던 남조선의 나 어린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마구 깔아죽이고 서울 한복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란저균실험까지 거러낌없이 감행한 미군 무엇이 고와 남조선인민들을 보호하겠는가.

이번에 《싸드》배치로 성주가 결정되는데 대해 남녘의 각계가 평택

한 괴담인가.

《《싸드》의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하는것도 악어가 사람에게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꾀변, 괴담이 아닐수 없다.

2011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손전화기의 전자파가 뇌종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

손전화기의 미세한 전

진짜 《싸드》 괴담은...

파 오산, 대구 등 미군기지들은 모두 《싸드》관할지역안에 들어오고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절대대부분이 사는 지역은 《방어지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싸드》배치》라며 규탄하고있는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주변 나라들을 겨누는 《싸드》배치로 하여 오히려 성주를 비롯한 남조선지역은 주변나라들의 미사일타격의 첫번째 과녁으로 되게 되었다. 남조선지역을 대국들의 전략적싸움의 대결장으로 만들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송두리채 위험에 빠뜨리는것이 바로 《싸드》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고 하니 얼마나 황당

자파가 인간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인데 《싸드》의 고출력전자파야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싸드》의 레이더는 일반 레이더보다 더 강력한 전자기파를 내보내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은 물론 동식물과 차량, 비행기 운항 등 주위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미국이 지난해 5월에 작성한 판도의 《싸드》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레이더로부터 전방 100m안의 지역에 사람이 몇분동안 있으면 화상이나 내장손상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쓰여있다. 그런가하면 《싸드》레이더를 다루는 미군병사들은 《발전기의 평음이 작은 마을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하

던데 남조선의 현 집권자 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불필요한 논쟁중이 《싸드》배치지인 경 상북도 성주군을 찾았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 거에 부딪쳐 곤역을 치르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성 주군청에 나타나자 《《싸드》배치 결사반대》라는

세가 더 악화되고 남조선과 강대국들사이의 대결과 전쟁판에 휘말려들수 있는 2중, 3중의 위협까지 떠안게 된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기에서 《싸드》배치로 인한 극심한 환경 파괴와 막대한 비용의 부담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될것은 무고한 남조선인민들뿐이다.

친미사대굴종이 체질화된 집권자 하나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될 화는 이처럼 엄청나고 돌이킬수 없는것이다. 현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돌아가는 박근혜야말로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가 마땅한 특등재앙거리임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런데 남조선의 현 집권자 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불필요한 논쟁중이 《싸드》배치지인 경상북도 성주군을 찾았다가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거에 부딪쳐 곤역을 치르었다고 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성주군청에 나타나자 《《싸드》배치 결사반대》라는

세가 더 악화되고 남조선과 강대국들사이의 대결과 전쟁판에 휘말려들수 있는 2중, 3중의 위협까지 떠안게 된것은 명백한 일이다. 여기에서 《싸드》배치로 인한 극심한 환경 파괴와 막대한 비용의 부담까지 계산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될것은 무고한 남조선인민들뿐이다.

친미사대굴종이 체질화된 집권자 하나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될 화는 이처럼 엄청나고 돌이킬수 없는것이다. 현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돌아가는 박근혜야말로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가 마땅한 특등재앙거리임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팩트팩트인 《합바지》를

이런자들에게 민심이 매를 든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합바지》에 불과한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싸드》배치에 분노한 민심으로 부터 지금은 저주와 규탄의 마음을 담은 물병과 닭알 세례를 받았지만 앞으로 청와대안방주인에게 차례질것은 호된 몽둥이찜질 일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면서 《이 지역에서 살수 있는 생물체는 돼지뿐》이라고 실로하였었다.

《《싸드》로 날아오는 북의 미사일들을 요격할수 있다.》는것도 황당한 괴담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전문가들조차 《《싸드》로는 지상대지상중 장거리전략탄도로켓을 막을수 없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싸드》는 요격고도가 40~150km이기때문에 고도 40km이하로 비행하는 북의 방사포와 장거리 포들을 요격할수 없을 뿐아니라 한개 포대에

요격미사일 48발밖에 가지고있지 못한 《싸드》로 시간당 수만발씩 쏟아붓는 북의 화력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고 실로 하고있다. 도저히 막을수 없으면서 주변나라들을 감시, 공격하기 위해 배치되는것이 미국제 《싸드》이다.

남조선당국이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하는것도 판에 박은 괴담이다.

경상남도지사라는자는 《경북 성주에 《종북》 좌파들이 또다시 집결할것.》, 《《종북》 좌파들에게는 호재》, 《좌파매체들도 괴담을 확대재생산 하면서 기승을 부릴것.》이라는 악담을 꿰뚫었다. 성주군 주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는데 대해 《시위를 선동한 사람들은 통합진보

당 잔존세력이 아닌가.》고 하는자들도 있다.

지금 《싸드》가 배치되는 성주군에서는 군내 전체 주민들이 분격하여 매일같이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리고있으며 여기에는 나 어린 중학교 학생들까지 참가하고있다. 이들이 모두 《종북》인가.

《싸드》는 성주군주민들만이 아니라 온 남녘인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것이다. 그래서 《싸드》반대투쟁은 남녘땅 각지에서 로원의 불길마냥 타번지고있다. 이들의 분노를 요격할수 없을 뿐아니라 한개 포대에 요격미사일 48발밖에 가지고있지 못한 《싸드》로 시간당 수만발씩 쏟아붓는 북의 화력을 막을 방도가 전혀 없다.》고 실로 하고있다. 도저히 막을수 없으면서 주변나라들을 감시, 공격하기 위해 배치되는것이 미국제 《싸드》이다.

이런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자들이야말로 미국을 위해 제 땅에서 사는 인민들에게 무서운 재난이 들춰워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종미》의 화신이라 불려야 할것이다.

보는것처럼 인민들에게 해로운 진짜괴담을 만들어내고 널리 류포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남조선집권당국이며 그들이야말로 심참으로 처형해야 할 력사의 죄인들이다.

황금철

천하의 대역죄를 덧씌고 있는 민족의 재앙덩이는 하루빨리 매장해치워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해외에 나가지만 하면 미친개마냥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고 비굴하게 놀아대며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저주와 비난을 받고있는 시대의 추물이 바로 박근혜이다.

얼마전 몽골에서 진행된 아시아유럽수뇌자회의에 계바라간 박근혜는 여기저기에 추한 상통을 내리고 《북의 비핵화》니, 《옳바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악담을 쉼쳐냈는가 하면 《제재조치의 리행》을 고아대며 비렬한 청탁놀음에 매달렸다.

박근혜의 망동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의 빠속까지 들어간 대결악녀의 속통과 본색을 또다시 드러냈으므로 해외행각 때마다 국제사회가 목격해온 역스러운 추태의 반복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박근혜는 집권이후 무려 20여차례나 해외를 싸다니었지만 그때마다 상대가 누구이건 의제가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고 무력대고 동족을 헐뜯는 판박이 대결타령만을 되풀이하며 온갖 해피망측한 추태를 다 부리었다.

그러나 박근혜파위가 아무리 양탈질해도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적대세력의 발악적도전을 짓부시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하

는 보검으로,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평화와 안정의 위력한 무기로 더욱 비상히 강화되고 역도가 그처럼 고아대던 국제적인 《공조》놀음은 갈수록 거덜이 나 파산의 운명에 처한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털어놓고 말하여 박근혜가 그동안 짓먹던 힘까지 짜내여 우리에게 대한 구역질나는 험담을 토해내고 외세와 입맞추며 온갖 요사를 떨며 동족을 해쳐달라고 비리질하였지만 얻은것이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 국제사회의 망신과 조소뿐이다.

이쯤되었으면 국제사회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 돌이켜보기도 하고 자중할줄도 아는것이 정상적인 사고와 감각을 가진 사람의 처신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번에도 국제회의장이 저들에게 대결망동을 부리라고 깔아놓은 명석으로 여겨졌는지 다 꿰진 대결복통을 두드려대어 만사함을 경악케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회의에 참가해서는 아무런 주대도 없이 백악관의 생무새 노릇이나 하고 말귀도 모르는 그 나라 말을 씨벌여대면서 동족을 해쳐달라고 악청을 둔구는 이러한 정신이상 환자를 누가 반갑다고 하겠는가.

동족을 압살할수만 있다면 그 무슨

것도 가리지 않는 박근혜역도이기에 이번에 선행자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함으로써 온 남녘 땅을 외세의 각축전장으로 전락시키고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탱전위기를 초래하는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대역죄를 저지른것이다.

사실 박근혜의 이번 행각은 굴욕적인 《싸드》배치결정에 격노한 남조선민심의 항거와 규탄여론을 모면해보려는 도피행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은 미국에 아부굴종하여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한 박근혜역도에 대한 분노와 항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남조선야당과 사회 각계가 박근혜의 친미굴종행위를 강력히 규탄배격해나서고있으며 《싸드》배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성주를 비롯한 도처에서 매일같이 격렬한 투쟁들이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을 일대 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해외에 나가 동족을 헐뜯으며 미친개처럼 돌아친 박근혜역도야말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우환거리이며 민족공동의 악성종양이다.

박근혜패당이 이번 행각에서 그 무

슨 《국제공조의 재확인》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성과》라도 거둔듯이 떠들고있지만 밖에 나가서까지 미국의 특등주주로 물리위 무참한 탱대와 무시를 당한 치욕과 굴욕을 결코 감출수 없다.

박근혜패당은 제아무리 세상에 대고 《북비핵화》니, 《대북제재》니 하고 짓어대도 이제 더이상 통할수 없게 되었으며 그 누가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소음공해로 된지 오래다 는것을 똑똑히 알고 더러운 입부리를 함부로 놀려대지 말아야 한다.

국제사회가 탱대하고 배척하는지도 모르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동족을 모해하려 악을 쓰는 박근혜야말로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해야 할것이다.

더욱 가소로운것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과멸의 운명에 처한 박근혜가 체 처지도 모르고 통일은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니, 《핵무기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니 하면서 《흡수통일》기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낸것이다.

청와대안방에 들어박혀있든 밖에 나돌아치든 밤낮 동족이 망하기만 고대하는 박근혜의 잠꼬대같은 망발은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력에 질 겁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추악한 대결악녀의 마지막발악에 불과하다.

피폐패당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통일》을 망상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우리식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다.

이번 행각을 통해서도 박근혜역도야말로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은 천하에 돌도 없는 국제창녀이며 온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극악무도한 요괴라는것이 더욱 날날이 드러났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의 상통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고 저주하면서 더 큰 화난을 겪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고 절규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온 겨레는 력사와 민족애에 씻을수 없는 만고죄악을 저지르고있는 무지무도한 박근혜역도를 절대로 용서치 말고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천하의 대역죄를 덧씌고있는 박근혜역도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주제 105(2016)년 7월 21일 평양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바람난 암고양이마냥 여기저기 싸다니며 민족의 리익에 해만 주는 망동만 앞세우고 있어 내외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제11차 아시아유럽수뇌자회의에 참가한 답시고 몽골을 행각하면서 한 행동이 그것이요. 링게르까지 맞는 처지인 로리카와 유럽지역을 싸다닌지 한 달이 조금 지나 벌어진 이번 행각기간 남조선집권자와 여러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이라는데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북비핵화와 옳바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느니, 《대북제재의 철저한 리행》이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을 걸고들며 비렬한 구걸놀음에 매달렸다.

남조선집권자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오금에 바람이 차가지고 동네방네 싸다니듯 해외를 돌아다니며 하는 수작이 바로 《북비핵화》와 《대북제재》구걸놀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국제회의장에 머리를 들이밀고 의제가 무엇이고 성격이 어떠한것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또 대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가림이 없이 무력대고 《북비핵화》니, 《대북제재

공조》이니 하는 동족대결타령만 계속 늘어놓는 남조선집권자의 귀청메우는 다 꿰진 레코드소리에 세상사람들은 이미전에 귀를 막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에도 동족대결의 악청을 또 다시 돌구었다.

남조선집권자의 망동은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병적인 대결광증의 발로로서 침략적인 《싸드》배치결정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박공조제를 어떻게 하나 부지하고 저들에게 쏘리는 내외의 규탄여론을 모면해보려는 필사적발악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은 미국에 아부굴종하여 침략적인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한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분노와 항거로 끓어번지고 있다.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 삭발, 학교등교거부 등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들이 매일 벌어지고 밤에는 밤대로 초불시위투쟁이 남조선의 도처에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청와대안방주인의 노복으로서 《싸드》배치주장에 누구보다 열을 올리던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싸드》배치지역인 성주군인민들로부터 저주와 분노의 닭알세례와 물병소나기를 맞고 수시간동안 움썩달싹 못하는 봉변까지 당하였다.

푼수없는 아나네 풍지박산난 제 집안은 돌볼생각 없이 이집저집 싸다니며 잘되는 남의 집일 흥본다고 상전에 아부굴종하여 침략적인 《싸드》를 끌어들이기로 하여 온 남조선땅을 일대 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또다시 도피행각에 나서 동족을 헐뜯으며 돌아친 남조선집

권자야말로 온 겨레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민족의 악성종양이다.

가관은 남조선집권자가 안팎으로 궁지에 몰려 시시각각 들려오는 과멸의 초침소리도 가려듣지 못하고 통일은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니, 《핵무기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니 하면서 《흡수통일》기도까지 서슴없이 드러낸것이다.

청와대안방에 틀어박혀 독선과 불통만을 일삼다니니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는지도 모른채 《붕괴》니 뭐니 하며 밤낮 동족이 망하기만 고대하는 박근혜의 잠꼬대같은 망발은 그대로 만리마속도로 경이적인 사변들을 창조하며 전진하는 공화국의 위력다. 이 혼맹이 빠져 정신이상이 생긴자의 숨넘어가기 전의 비명소리에 불과하다.

남조선집권자가 지구가 깨진다 해도 실현될수 없는 《제도통일》의 망상을 꿈꾸면서 다 꿰진 상전의 《핵우산》을 등대고 북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침략자들에게 자비를 모르는 공화국에 있어서 호전세력들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으로 하여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요 얻을것은 전조선반도의 통일뿐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외세의 리익과 요구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으며 온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박근혜와 같은 극악한 민족반역자가 이 하늘아래 살아숨쉬고있다는것자체가 민족의 수치이다.

민족에게 화만 자청하는 악마, 요귀는 한시바베 들어내는것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김혜성

부패의 악취를 풍기는 청와대

최근 남조선에서 고위 집권층인물들의 부정부패행위가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일어난 일명 《진경준게이트》가 그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에 따르면 검사장인 진경준은 어느 한 게임업체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넘겨받고 그것을 되팔아 120억원의 폭리를 얻었다고 한다. 이것도 폭로되어 진경준은 긴급체포되고 구속되었다.

남조선에서 현직 검사장이 체포구금된것은 류태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진경준게이트》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검찰이 오히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강패검찰이 되었다.》, 《정치검찰도 모자라 이제는 부패검찰, 도적검찰이 살판치는 세상》이라며 저주와 비난을 보내고있다.

남조선에서 검찰이 권력을 등대고 당국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선것으로 하여 《정치검찰》로 악명을 떨쳐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남조선검찰이 《정치검찰》로뿐만아니라 이미전부터 《부패검찰》검사가 자신이 조사하

던 피의자녀성과 성관계 하는 성추문검사, 별장 성접대검사, 제가 술을 마시고도 그 값은 다른 사람들이 물게 하는 스콘 서검사, 떡값검사, 사건을 무마시켜주거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고급승용차 등을 받은 벤즈검사 등 남조선검찰들의 부정부패행위는 각각각색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품수수, 성추문, 사건알선의혹, 성접대의혹, 퇴물수수 등의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검사가 228명에 달한다고 폭로한 사실은 남조선검찰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남조선검찰은 《제 식구감싸기》놀음으로 범죄를 저지른자들의 죄를 감싸거나 덮어두며 사회적여론으로 처벌을 준다는것이 기껏해야 경고, 직위강급이나 같은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의 《술방망이때》밖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228명의 범죄자중 처벌받은자가 42명으로서 대부분 경고나 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이번에 폭로된 《진경준게이트》도 사건의 실마리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남조선검찰은 이를 감싸고있다가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이번에 수습대책으로 그를 체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진경준게이트》는 진경준체포로 사건의 막을 내리운것이 아니라 그 불통이 청와대까지 번져 더욱더 심각해지고있다.

지난 18일 남조선의 어느 한 신문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와 어떤 게임업체간의 불법비밀의 1 300억원대 부동산거래에 진경준이 개입하였다고 하면서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지난해 2월 진경준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검증을 맡고있던 우병우가 자기의 부동산매입때문에 진경준의 불법적인 게임업체주식보유를 문제삼지 않은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우병우가 변호사시절 《물레변론》으로 수많은 돈을 챙기었다고 폭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던 때인 2014년 11월 그의 처가가 《자기로동력으로 농사짓지 않으면 땅을 살수 없다.》는 《농지법》을 어기고 경기도 화성시의 밭 4 929㎡(1 491평)을 사들인것이 얼마전에 드러나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니 뭐니 하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지만 불 안팬 굴뚝에서 연기가 날수 없다.

가관은 여기에 청와대 안방주인까지 나서서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현 집권자가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무수한 저항과 비난에도 흔들리면 안된다.》느니,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키라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한것을 두고 언론들은 그것이 우병우를 감싸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불법으로 《정권》을 가로채고 독재와 독선, 불통만을 일삼으며 《세월》호사건때와 같이 온갖 추문만 남긴 현 집권자를 그대로 놔두고 수하줄개들도 부정부패에서는 누구에게도 짝지지는 않는다.

이번에 폭로된 《진경준게이트》사건은 남조선검찰은 물론 청와대도 통채로 썩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부정부패의 악취는 다음아닌 청와대에서 풍겨나온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하만행진 배우동맹 해 금까지 악조건인

에 바람이 차가지고 동네방네 싸다니듯 해외를 돌아다니며 하는 수작이 바로 《북비핵화》와 《대북제재》구걸놀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국제회의장에 머리를 들이밀고 의제가 무엇이고 성격이 어떠한것인지도 가려보지 못하고 또 대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가림이 없이 무력대고 《북비핵화》니, 《대북제재



생존권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해외동포사회에 뻗친 추악한 마수 (2)

박근혜 《정권》의 반민족적죄악은 해외동포들에게 《중북》, 《친북》의 자대를 들이대며 동포사회를 리간, 분열시키고있는데서도 드러나고있다. 지난해 공화국을 다녀온 재미동포 신은미녀성이 《재미동포아줌마 북에 가다》라는 책을 출간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북을 다녀온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중북》으로 몰아 미국으로 쫓아버리는 망나니짓을 한것이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올해 3월 재미동포 장호준목사가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고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광고를 게재했다고 하여 그를 《선거거법》위반으로 몰아 권반남조치를 취한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박근혜 《정권》은 공화국을 다녀간 해외동포들은 물론이고 공화국을 동

경, 찬양하는 해외동포들과 그 단체들을 《중북세력》으로 락인하고 해외주재 남조선대사관 등을 통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2014년 11월 박근혜 《정권》은 《해외(중북세력)의 반국가적활동실태》라는 토론회를 벌려놓고 《청와대 안보실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정보원, 경찰, 검찰 등으로 구성된 <해외공관 안보점검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해외(중북세력)의 반국가활동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것을 모의하였다. 해외동포들을 《중북》의 자대로 차별하고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을 투시하면 그 배경에 얼른거리는 《유신》독재의 망령을 볼수 있다. 《유신》독재시대에는 《해외동포는 간첩》이라고 할만큼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간첩》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썼다. 1967년에 조작된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일명 《동백림사건》)은 자기의 집권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은 《유신》독재의 《대표적인 걸작》이었다. 도이칠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지역의 학계, 문화계인물들과 류학생들이 《유신》독재가 조작한 《〈한〉 일회담》의 정체를 폭로하고 남북교류 등을 주장한다고 하여 유악가 윤이상부부, 화가 리용로부부, 물리학 박사 정규명부부 등 무려 329명을 체포하고 1968년 《공관》에서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들쭉운 사건이다. 그후 사건은 《유신》독재자가 《〈한〉 일회담》 이후 거세지는 반《정부》투쟁을 잠재우고 《3선개헌》을 획책하기 위해 꾸며낸 모략극이라는것이 판명되었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류

학생 서승, 서준식에 대한 《재일동포학생간첩단사건》, 1975년의 《재일동포류학생간첩단사건》, 1977년의 《학원침투 재일동포간첩사건》 등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간첩》으로 몰려 중형을 당하였다. 단 한가지 《유신》독재의 집권과 연장을 위해 이역에서 사는 해외동포들까지 《제물》로 삼은 것이었다. 당시를 회고하여 남조선의 한 언론은 《박정희시대는 악마의 시대였다.》고 평하였다. 《유신》독재의 광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해외동포사회의 분열, 리간을 조성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선 동포들을 《중북》으로 몰아가는 박근혜에 대해 남조선민심이 《그 애비에 그 딸》이라고 저주하는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김정혁

고조되는 긴장, 침몰하는 경제

지금 남조선경제는 더 이상 버틸수 없는 미군 상태에 빠져들고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하나를 남조선에 투자되었던 외국자본의 해외리출에서 찾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경제는 외국자본에 철저히 예속되어있고 《외자에 의해 부풀려져》있는 《거품경제》이다. 남조선경제는 투자하는 외국자본이 늘어날수록 《활성화》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자본이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거품과 같이 가라앉게 되는것이다. 투자자들이 투자지에서 자본을 회수할 때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관건적인것이 바로 해당 지역의 정치군사적안정이다. 투자지역이 정치군사적으로 안정되고 평온이 유

지될 때만이 안전한 수입을 얻을수 있으며 그 규모도 확대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세력의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훈민들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군사적긴장이 조성되어있으며 남조선에서는 외국자본이 무리로 빠져나가 1990년대 중엽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있다는것이 내외경 제전문가들의 일치한 평가이다. 그 어느 투자자도 세계 최대의 핵약국으로 불리우는 남조선에 자기 자본을 비축해두겠다고 할리는 만무한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안전권》이라던 개성공업지구가 전면폐쇄되자 정세악화에 위기를 느낀 외국자본들은 순식간에 125억US\$의 자본을 해외로 빼돌려 남조선주식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았다. 남조선의 경제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정세악화로 남조선에서 빠져나간 외국자본은 무려 605억 75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한 전쟁광신자들의 《싸드》배치결정은 《외자리탈》을 더욱 부채질할것으로 보고있다. 남조선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의 자본총액의 60~80%를 차지하는 외국자본이 대량적으로 해외에 리출된다는것은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제파탄이 민생도탄으로 이어지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는 852만명에 달하고있으며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고용되어 일하며 낮은 임금을 받는 반일업자는 1 000만명을 헤아리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삶의 기초가 없이 그날그날을 연명해가는 《절대빈곤층》은 570여만명에 달하고있으며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은 250만명을 넘어서고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남조선에서 전쟁위험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고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희망도 가질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있다. 경제가 파탄이 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아랑곳없이 동족대결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집권세력을 두고 지금 남조선항간에서는 《밀구멍으로 피땀짜는줄 모르고 전쟁나발 붙어대는 미친년놈들》, 《전쟁불사 한마디 씩 할 때마다 숨구멍 겨는 술가미가 한뼘씩 조여드네》, 《미국놈 배불려주려 국민들 죽이는 살인귀들》, 《전쟁고취 그만하고 사람 살고부러보자》, 《출로는 박근혜를 몰아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있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련일 울려나오고있다. 자욱히 깔린 북침전쟁연습소동의 화약내축에서 급속히 침몰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확연히 안겨오고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지난 5월 17일에 발생한 서울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에 대해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망범죄》로 규정했다. 《절망범죄》는 사회구조적차별 때문에 쌓인 분노를 사회적약자에게 표출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희생자는 여성이나 노인, 어린이 등이다. 그저 여성이라서, 노인이라서, 어린이라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런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것은 위험하다. 《절망범죄》의 근본원인은 사회구조적문제에 있고 그 구조적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리산될수밖에 없다는 지

인권지옥에서 울리는 소리 분노 배출할 적이 필요해!

적이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구조적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며 분노하는데 최근의 《절망범죄》에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가 내재해있다는것이다. ... 여성혐오의 본질은 분노사회다. 쌓이고쌓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문제 풀어서 터진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상황에서 청년세대는 깊은 좌절을 겪는다. 여성혐오로 대표되는 청년세대의 《혐오》 내지 《증오》는 청년실업률의 급증과

맥을 같이 한다. 《헬조선》, 《노답사회》(답이 없는 사회), 《협오》, 《충(蟲)》이 유행어가 된 시기와도 맞물린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헬조선》보다 더 흔하게 회자되는 말이 있다. 바로 《노오력》이다. 젊음은 힘이 든다 이 신조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 개인의 자질과 태도로 몰아가는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비꼬는 말이다. 취업대란, 청년명퇴, 저출산과 고령화, 치솟는 주

거미와 자살률, 부의 양극화, 취약한 사회안전망... 최근 젊은층이 맞닥뜨린 사회의 《멘얼굴》이다. 소위 《노오력》으로 안되는 사회에서 그들은 좌절과 분노를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희생양을 찾아 그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혐오하는것이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벌레》로 규정해 비난하고 미워하는것은 쌓인 분노를 표출하는 한 방식이다. 결국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라는

이름으로 격렬하게 싸우는 이들은 둘 다 피해자다. 서로가 서로를 적이자 가해자로 몰아세우지만 진짜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시장경제의 실패에서 연유한 국가경제의 실패가 이런 다층적인 실패를 몰고왔다.》고 지적한다. 《너성의 가해자는 남성중심적인 조직과 남성을 잠재적가해자로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이며 남성의 가해자는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경제구조에서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라는것이 이 교수의 말이다. 《남조선잡지 《주간조선》 2016년 6월 5일호에서 전재)

지 여러 시간이 흐르도록 《대통령》이 행방불명이 된 가혹한 현실에 림하영은 망연자실하였다. 《기다리라? 과연 언제까지... 이를 어찌나!》 전광판에 표시되는 구조인원수는 시간마다 줄었다늘었다 하면서 승선자 가족들의 신경줄을 팽팽하게 하였다. 《정부》의 종합적인 지휘가 없이

되지 않았다. 자기라도 배를 얻어 타고 《세월》호가까이로 가보려고 했으나 그마저 성사되지 않았다. 이제는 아들이 구원의 시각까지 견뎌 주었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만 남아있었다. 배를 깔고 심장을 감는 밤파도소리에 호느껴 울며 림하영은 비닐박막을 걸쳐 두른채 장밤 부두가에 있었다. 아들이가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 시각이 이 밤이런듯 눈앞에 방불하게 안겨왔다. 떠나기 전날 미흡한 점이 뭘가 골똘히 새겨보던 끝에 림하영은 요새 유행이라는 탄력있는 운동신을 사들고 나는듯이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신발만은 락제였다. 앞코송이가 지내 뻑뻑하게 들어찼던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키는 대견스레 여겨보면서 도 어느새 움푹 자란 아들의 발을 미처 가늠 못한 림하영이었다. 《하루만 더 있으면 바뀔텐데...》 《엄마, 아쉬워 말어. 들뜬 제주도에서 새 신다 닳으면 어찌지?》 능청스레 정색해서 묻는 정현이를 림하영은 밀지 않게 흘려보았다. 《애두, 꼬마인가? 아직

단편소설

불을 부르는 소리 (8)

글 오송심, 그림 김윤일

저지공통성으로 넘겨해 준 주변의 가냘픈 인심으로 림하영에게도 갈래 하나가 차례졌다. 널찍하고 든든한 체육관바닥에 깔개를 펴고 앉았던 창과 우의 쪽배에 실린듯 림하영의 온몸은 불안으로 후들후들하였다. 정현이네 참사소식을 들은 때부터 자제와 행정의 탓이 들리워 평형을 잃어버린 림하영이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집요함에 몰려워 림하영은 손전화기를 놓지 않았다. 주소를 발각 뒤지여 이번에는 청와대비서실의 번호를 찾아내었다. 마침이라 싶어 한번, 또 한번 응답없는 상대를 찾아 그냥 돌려대었다. 참으로 알곳은게 인간의 심리이런가. 불행이 닥친 순간에조차 행운을 비는것을 단순히 무지의 회통으로 봐야 하겠는지. 기다림의 이 시각 림하영은 공상의 위안속에 잠겨 들었다. 하늘이 비좁게 떠도는 직승기들, 바다를 메운 함

정들과 잠수부들, 군복차림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민활하고 용의주도한 룩해공군 총지휘로 기적같이 수면위로 등실 떠오르는 《세월》호, 구조된 애들과 그 가족들의 목메인 환성으로 왈작 끊어번지는 팽목항, 얼싸안은 정현이와 림하영을 바라보며 수호신인양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대통령》... 한창 부풀리던 상상을 깨치며 뜨직한 응대가 있었다. 《누구신지요?》 《림하영이라고 저-가수인데요.》 《아, 림하영씨! 전번선 거때 면식을 익혔지요. 각하의 감사편지도 제가...》 피득 피득속삭고 기를 한 얼굴이 생각났다. 능글맞게 울리훔고 내리훔던 끈끈한 그 눈길이 살갗위로 스멀스멀 기어가는 털벌레같이 오싹 소름이 끼치던 사내였다. 달갑지 않은 회오리로 눈살이 찌푸려졌으나 별수 없었다. 림하영은 호-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나

마 알만한 상대이어서 다행이었다. 림하영은 촉박한김에 수인사는 생략한채 서둘러 용건을 털어놓았다. 《각하가 응답하지 않아서... 《세월》호 아시죠? 우리 애가 거기에... 급해요. 살려주세요!》 림하영은 허둥거리지는 마음에 두서없이 말하다가 비명같이 끝을 맺었다. 《...》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이 들려요?》 전화가 끊어졌는가 하여 림하영은 연거퍼 응답자를 불렀다. 《듣죠, 들었습니다. 헌데 각하의 행적을 몰라로서...》 림하영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개인생활의 비밀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서면보고랑 수차 올렸으면 회오리가 있을겁니다. 기다려야지요.》 그건 그렇고, 전날 TV에서 보니 하영씨 미모 여전

하더구요.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시죠. 함께 식사나 한끼 나섰으면 합니다.》 (다들 제정신들인가.) 림하영은 엄청난 참사를 너무도 심상하게 대하며 왕청같이 식사타령을 하는 비서실의 사내도, 행정처장의 《대통령》도 못내 원망스러웠다. 말을 잊은 림하영의 심리가 그제야 짙어졌던지



비서실의 사내가 제켄에서 쌀쌀해지며 먼저 통화를 매듭지었다. 《아하- 그럼, 제 좀 바빠서...》 림하영은 아연하였다. (이보다 바쁜 일이 어디에 있단.) 수백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기는 참사가 일어난

지 여러 시간이 흐르도록 《대통령》이 행방불명이 된 가혹한 현실에 림하영은 망연자실하였다. 《기다리라? 과연 언제까지... 이를 어찌나!》 전광판에 표시되는 구조인원수는 시간마다 줄었다늘었다 하면서 승선자 가족들의 신경줄을 팽팽하게 하였다. 《정부》의 종합적인 지휘가 없이

되지 않았다. 자기라도 배를 얻어 타고 《세월》호가까이로 가보려고 했으나 그마저 성사되지 않았다. 이제는 아들이 구원의 시각까지 견뎌 주었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만 남아있었다. 배를 깔고 심장을 감는 밤파도소리에 호느껴 울며 림하영은 비닐박막을 걸쳐 두른채 장밤 부두가에 있었다. 아들이가 수학여행을 떠났던 그 시각이 이 밤이런듯 눈앞에 방불하게 안겨왔다. 떠나기 전날 미흡한 점이 뭘가 골똘히 새겨보던 끝에 림하영은 요새 유행이라는 탄력있는 운동신을 사들고 나는듯이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신발만은 락제였다. 앞코송이가 지내 뻑뻑하게 들어찼던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키는 대견스레 여겨보면서 도 어느새 움푹 자란 아들의 발을 미처 가늠 못한 림하영이었다. 《하루만 더 있으면 바뀔텐데...》 《엄마, 아쉬워 말어. 들뜬 제주도에서 새 신다 닳으면 어찌지?》 능청스레 정색해서 묻는 정현이를 림하영은 밀지 않게 흘려보았다. 《애두, 꼬마인가? 아직

엄마엄마하면서...》 속상한김에 던지는 어머니의 핀잔을 못 들은척 하며 정현이 제법을 러했다. 《오는 일요일, 즉 내 생일날 맞춤형 신으로 무조건 봉창해줘요. 값은 제 주도사진들로 치를게요. 하하...》 정현은 어머니의 어깨 위에 친구처럼 한팔을 척 걸치고 서서 유쾌히 웃어 제겼다. 결사관까지 씻은 듯 기분이 맑아지게 하는 리없는 웃음이었다. 그바람에 만단시름이 다 날아나 혼연히 아들의 면길을 바래운 림하영이었다. (운동신을 구실삼아 애 당초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걸.) 러무니없는 후회로도, 자책으로도 아픈 마음이 덜어지지 않았다. 뒤날 기쁜 추억으로 될 것이라곤 서운한대로 접어 두었던 그 모든것이 새록 새록 떠오르며 림하영의 속을 피나게 허벼대었다. 기나긴 악몽같은 하루가 지났다. -정현아, 끝까지 버려주렴. -엄마 혼자 못살아. 넌 나쁜 자식이야. -살아오겠다고 했잖아. 어서 돌아와줘.